

경제

은행권 추석자금 수조원 푼다는데 ... 대출 제한 '불똥' ... 자영업자 '한숨'

광주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이 올해 추석특별자금대출을 과격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제한이라는 '불똥'이 이들에게 튀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광주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올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추석자금 지원 규모를 속속 확정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와 비슷한 총 2000억원 규모의 추석 특별자금을 편성, 지난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긴급 지원한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고 40억원 이내며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최고 1.3%포인트까지 우대해 업체의 금융부담까지 덜어주기로 했다. 특히 집중 호우와 태풍 무이파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다.

지난 16일부터 19일 현재 20여건에

35억원이 지원됐으며 이번주나 다음 주가 본격적인 자금 수요 피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416건에 971억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도 비슷한 규모가 집행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 많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총 2조원 규모의 추석 특별자금을 다음달 23일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의 경우 책정했던 1조원이 조기에 소진돼 올해엔 지원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이다. 원자재 결제, 인직원 임금과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업체당 3억원까지 지원되며, 필요운전자금 산정을 생략하고 담보나 보증서 대출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영업점 심사만으로 대출이 가능해 신속한 자금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5000억원을 배정했던 하나

은행도 1조원으로 지원 규모를 두 배로 늘렸다. 금리는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고 2.25%까지 가능하다.

농협은 신규 추석자금을 2009년 3000억원, 작년 5000억원에서 올해는 2조원으로 증액했다. 부산은행도 작년보다 2000억원 늘린 총 500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국민, 신한, 우리, 산업은행 등은 아직 지원 규모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지원 규모 증액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추석자금을 대폭 늘렸지만 '언 밤에 오름누기'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자영업자에 한시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처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가계대출을 늘렸다가 당국에 훈포가 난 은행들이 극도로 가계대출을 자제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 이들이 상당 부분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끌어쓰고 있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전국 1만 가구를 표본으로 지난해 실시한 '가계금융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전체 가계부채의 50%가 자영업자 대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현대경제연구원 박태준 전문연구원은 "자영업자와 가계의 구분은 없다"고 밝힌다. "구체적인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집을 담보로 빚을 내야 할 정도로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진 자영업자의 수는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은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추석자금은 곧바로 회수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연합뉴스



"기아 디지털 갤러리에 오세요" 기아자동차는 서광주지점 등 전국 324개 지점과 20개 서비스센터에 설치된 '기아 디지털 갤러리'를 통해 오르세 미술관 가상 전시회를 22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연다. 전시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의 '아름의 별이 빛나는 밤' 등 현재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 중인 '오르세 미술관' 작품 50점이다. <기아차 제공>

광주·전남 체불임금 크게 줄었다

3129개 사업장 119억 ... 지난해보다 270% 급감

광주·전남지역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광주권역(광주·나주·화순·장성·영광·구례·곡성)의 체불임금은 3129개 사업장, 119억원(4638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40억원보다 269.7%(321억원) 급감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지역 대표 기업인 금호타이어가 경영 악화로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체불액이 230억

원을 차지해 급증했지만, 최근 경기 회복으로 이를 해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사업주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서 79억7900만원(3558명)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해결하지 못한 29억3100만원(804명)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 처리했다. 또 10억600만원(276명)에 대해서는 추석 이전에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밖에 도산기업 26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515명에게 체당금 20

억7500만원을, 재직 근로자 29명에게 생계비 140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광주고용노동청은 추석을 앞두고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이나 업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의 부도·파산으로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최대 1560만원까지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체당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체불임금 및 체당금 문의는 전화 1350번으로 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가계빚 900조원 육박

사상 최대치 기록

마이너스 대출이 크게 늘면서 올해 2분기 가계신용이 전분기보다 19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가계빚은 900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2분기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876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분기중 가계신용은 전분기보다

18조9000억원 늘면서 1분기중 증가폭(10조40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 외상판매)을 합한 수치다.

가계대출은 전분기보다 17조8000억원 늘어난 826조원, 판매신용은 1조1000억원 늘어난 5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예금은행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5조4000억원)이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으나,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폭은 1분기 -9000억원에서 2분기 4조10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1조9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기타대출 증가폭은 9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기타금융기관 등 대출은 여신전문기관 및 보험기관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2조2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444조3000억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잔액은 173조6000억원, 기타금융기관 잔액은 208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외국인기업 2곳과 2720만 달러 투자협약

광주시는 22일 "이날 오전 강운태 광주시장이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외국인투자기업 2개사와 모두 2720만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투자협약을 체결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이탈리아 라 로지아 소재 레드쉬스톤(Reddish Stone)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주)지코로 이들 기업은 각각 치과 및 귀금속 연마기기 제조 사업에 2000만 달러, 산업용 병동냉장기기 제조 사업에 72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레드쉬스톤은 치과용 및 귀금속 세공을 위한 연삭용 기구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이탈리아 업체로 치과용 부품·금형·액세서리 등의 마부리 가공에 사용되는 초정밀 연삭 공구를 생산하고 있다. 관련분야 세계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이와 함께 광주테크노파크는 레드쉬스톤의 비즈니스 및 공동연구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번 레드쉬스톤과의 투자 협력이 치과산업 발전이 광주시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지코는 미국 업체 터보에어에 산업용 냉장기기를 수출해 오고 있으며, 터보에어가 100% 지분을 투자해 평동 1차 외국인투자지역에 설립한 업체 프리미어와의 협력을 위해 광주에 투자하게 됐다. 광주시는 이번 (주)지코의 투자로 10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 300여명의 매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코스피지수	1710.70 (-34.18)
코스닥지수	465.90 (-8.75)
금리 (국고채 3년)	3.49% (0.00)
원·달러 환율	1083.80원 (-3.6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전복장이 전문점

전복장터

양식장 직영 도·소매
할전복 전국택배 가능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구이, 전복스팀찜, 전복우유찜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곡지구 연초제조창, SK주유소,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롯데점, 코카콜라, 헤더제과, 금광아파트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중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중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 - 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